사찰에는 물고기가 산다



이상근의
聖寶流轉

⑯ 물고기 상징

전통사찰 중에 물고기 '어(魚)' 자가 들어가는 사찰이 세 곳이 있다. 범어사(梵魚寺), 오어사(吾魚寺), 만어사(萬魚寺)다. 세 사찰 모두 물고기와 관련된 전설이나 설화를 하나씩 갖고 있다.

이렇게 사찰 이름에 '물고기 어(魚)' 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다. 반면에 사찰 장식 중에는 가장 흔한 생물 중 하나가 물고기다. 불교를 상징하는 사자나 코끼리보다 흔하고 연꽃만큼 지천이다.

사찰의 다양한 물고기 상징

불구(佛具)를 살펴보자. 우선 목탁이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입, 눈, 머리, 몸통, 꼬리가 자연스레 보인다. 목탁의 확장판은 목어다. 범종, 법고, 운판과 함께 불전사물에 속하는 목어가 수중생물에게 깨달음의 소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절에 안 가본 사람도 아는 얘기다. 그런데 불전사물 '소품' 중에 물고기가 한 마리 더 있다. 바로 종을 치는 당목이다. 고래라 엄밀히 말하면 포유류지만 어쨌든 바다에 사니 물고기라고 해두자.

범종각을 지나 탑 앞에 서도 물고기를 볼 수 있다.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원래 탑의 층층마다 사방에는 풍탁(풍경)이 달려 있었다. 풍탁 안에서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것도 바로 물고기다.

이제 법당 앞에 섰다. 현판 좌우에 나란히 용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이들이 입에 물고 있는 게 또 물고기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처럼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게 용이 아니라 귀신 형상(귀면)인 경우도 있다.

외벽의 벽화 중에도 물고기가 가끔 보인다. 제천 신륵사 극락전 외벽 박공에는 물고기가 물고기를 토해내는 그림이 있다. 흔히 '토어도(吐漁圖)'라고도 불리는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토해내고 작은 물고기가 또 더 작은 물고기를 토해내는 그림이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행을 닦을 때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작은 물고기를 가엾게 여겨 큰 물고기를 잡아 멀리 보내고 작은 물고기들의 걱정을 덜게 했다는 전생담에서 취한 그림이다. 최근의 것이지만 해인사 대적광전 뒷면에는 등에 나무가 자란 물고기 그림이 있다. '목탁'의 유래를 담은 벽화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자 사찰 불단에도 물고기가 빠지지 않는다. 환성사 수미단이나 운흥사 수미단의 물고기는 유명하다. 법당에서는 고개를 숙일 줄만 알지 고개를 쳐드는 경우가 적어 놓친 물고기도 많다. 대표적인 게 완주 송광사 대웅전 천장이다. 물고기 천지다. 물고기 사이사이로 게나 토끼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 김해 은하사 대웅전 대들보에는 물고기에서 이제 막 용으로 변하려는 모양의 그림이 있다. 중국의 고사 어변성룡에서 취한 그림이다.



밀양 만어사 전경. 수많은 고기떼가 화석으로 변했다는 전설을 안고 있다. 또한 부처님 법으로 나찰녀를 교화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 천장. 물고기 등 동물이 새겨져 있다.

목탁 목어 등 佛具에 물고기 다수
사찰 벽화 · 장엄에도 물고기 상징
중앙뚠 거쳐 전래되며 본격적 활용
범어 · 오어 · 만어 등 사찰명 유래



은하사 대웅전 내부. 대들보에 어변성룡 그림이 있다.

사찰에 물고기가 사는 이유

그런데 사찰에는 왜 유독 물고기가 이렇게 흔할 것일까?

우선 초기 경전에 물고기 얘기는 없지는 않지만 흔치 않다. 전생담(자타카)에 나오는 물고기 이야기 정도가 다다. 그런데 전생담의 경우 '부처님의 친설' 이라기보다는 당시 내려오던 여러 설화와 이야기를 취합해 만든 경우가 발견돼 온전히 부처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없다.

그런데 차차 물고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니 불교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이나 티베트로 넘어오면서부터다.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새' 경전들이 심심찮게 출현하게 되고 물고기도 자주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람관음이나 아미타어 전설 같은 것들이다.

33관음 중의 한 분인 어람관음은 나찰, 독룡, 악귀의 해(害)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다. 경전에는 물고기를 담은 어람을 들고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림으로는 바구니에 고기를 넣고 있거나 큰 물고기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아미타어 이야기는 좀 길어서 지면에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물고기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불단의 조각 등으로 나타나면 아미타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하튼 중앙아시아와 중국이라는 필터를 거쳐 이 땅에 자리 잡은 '절' 에도 물고기 문양이 자연스레 자주 등장한다.

이런 물고기 문양이나 조각에 대한 해석은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물론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그리거나 조각되었는지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 몇을 소개한다.

첫 번째, 아마 불자라면 귀에 딱지가 앉히도록 자주 들었던 이야기일 것이다. 바로 밤낮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에 빗대어 쉼 없이 정진하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다. 목탁을 설명할 때 더 자주 듣는 말이다. 등에 나무가 난 목어 그림은 '게으른 비구' 의 후회를 상징하지만 그 나무로 만든 목탁이 '경책' 의 의미를 담았다는 건 아주 그럴듯하다.

두 번째, '어번성룡(魚變成龍)' 과 관련한 설명이다. 잉어가 황하의 용문이라는 거센 협곡을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는 고사성어가 '어변성룡' 이다. 이 내용을 절집에서 따다가 범부도 수행을 하면 깨달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김해 은하사 대웅전 대들보 등에 이런 그림이 보인다.

세 번째, 만사형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고기 어(魚)는 중국로 여(餘)와 발음이 같다. 또 이 여(餘) 자는 같을 여(如)와도 통하는데 우리가 흔히 여여(如如) 하시냐고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는 뜻과 맞닿아 있다.

네 번째,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민간의 염원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수미단 조각이나 벽화에 그려진 물고기는 다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알을 낳는 물고기가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들이나 조각들은 대부분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후 자주 나타난다. 조선 시대는 교리나 수행이 꽃을 피웠던 시기가 아니다. 사찰 입장에서는 생존 전략이 필요했던 때이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로가 필요했던 시기다. 이때 민간에서 유행하던 여러 그림이나 상징이 절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다산이나 풍요를 상징하던 물고기가 자연스레 절집으로 대거 진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불교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고 즐거움을 주자는 의미에서는 가능한 얘기다.

다섯 번째,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했다는 설이다. 목조 건물에서 가장 금기시 되는 것이 바로 불이다. 강과 바다의 기운으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불교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삼계는 모두 화택이니 물고기를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찰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이유는 더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추렸다.

물고기 이름 사찰들

서두에 밝혔지만 전통사찰 중 '물고기 어(魚)' 자가 들어가는 사찰이 셋 있다. 범어사(梵魚寺), 오어사(吾魚寺), 만어사(萬魚寺)다.

그 중 범어사의 유래는 이렇다.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남쪽에 명산이 있어 그 산 꼭대기에 높이 50여척의 큰 바위가, 그 바위 한 가운데 샘이 있으며 그 물빛이 금빛이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물속에는 범천으로부터 오색구름을 타고 온 금빛 고기들이 헤엄치며 놀고 있다하여 산 이름을 금정산(金井山), 절 이름을 범어사(梵魚寺)라 하였다."

오어사의 이름은 원래 항사사였다. 절 이름에 '물고기' 를 집어넣은 연유는 혜공 스님과 원효 스님의 유명한 일화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만어사다. 오어사 유래와 마찬가지로 그 유래가 〈삼국유사〉에 장황하다.

"만어사가 자리잡은 만어산에는 다섯 명의 나찰녀(여자 악귀)가 있었는데 독룡과 오가며 사귀었기 때문에 때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이래 오곡이 잘 되지 않았다. 왕(수로왕)이 주문으로도 이를 금할 수 없어서 공손히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였더니 나찰녀들이 오계를 받고 후에는 이런 폐단이 없었으며 동행의 고기와 용이 이 골짜기 속에 가득 찬 돌로 화하여 저마다 악기소리를 냈다."

이밖에도 〈삼국유사〉에는 만어사의 유래에 대한 다양하고 장황한 설명이 이어진다. 여하튼 지금도 만어사 앞에는 검은 돌들이 절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수만 개는 될 듯한 숫자가 흩어져 있다.

이렇게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절집에는 물고기와 관련한 다양한 전설 그리고 그에 묻어나오는 다양한 상징이 자리 잡고 있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세계 붓다 평화 봉사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불기 2564년은 중국 우환에서부터 전파된 코비드19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액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 칭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 존중하고 화합, 단결하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보다는 매사 긍정적이고, 불신보다는 화합의 포용과 미소로 함께 나누는 사회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이름도 富도 名譽도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수행자로 먹물 옷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중생들에 지팡이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불제자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몸소 실천하는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행원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위 모르게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세상 모든 분들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제출서류 및 안내 ◈◈

제출서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1통, 이력서 1통, 사진 1매 내외 ※ 본 협회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 격 승가 및 재가자로 불심이 돈독한 분
접 수 일 2020년 9월 30일(수) 까지
제 출 처 (우)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TEL 02-733-5665 / H·P 010-5229-6061 moktakno1@hanmail.net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상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공동본부장 혜정 · 진성, 조직 본부장, 심사 공동위원장 심오 · 현담,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도광, 심오, 현담,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김재은, 고동욱회장, 명지민,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추천된 대상 시상자들에게 서류 접수비 및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 협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 찬 현대불교신문사